



함께 그리는 새로운 미래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노피 당뇨사업부, 10주년 맞아**  
**‘The Future Starts Now’ 새로운 비전 아래**  
**당뇨병 치료의 청사진 그린다**

- 당뇨병 환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최적의 당뇨병 치료제 포트폴리오 구축
- 10년간의 자산과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환자 관리 및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4년 7월 9일, 서울** -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제약사업 부문인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는 사노피 당뇨사업부의 국내 진출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 ‘The Future Starts Now(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노피와 함께 그리는 새로운 미래)’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The Future Starts Now’는 지난 10년간 국내 당뇨병 치료 시장을 선도해오며 당뇨병 환자의 니즈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노피 당뇨사업부의 의지를 담았다.

사노피 당뇨사업부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기전의 우수한 치료제를 공급, 국내 치료제 시장 발전에 기여해왔다. 사노피는 당뇨병 환자와 의료진의 360도 당뇨파트너를 지향, ‘환자중심주의’(Patient Centricity) 가치 실현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으며, 제 1형 당뇨병 및 제 2형 당뇨병 환자용 주사제와 경구용 치료제 등 폭넓은 당뇨병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사노피 당뇨사업부는 보다 나은 당뇨병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당뇨병에 대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행복혈당’, 병원 및 클리닉에 인슐린 요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BINGO’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주도하는 최초의 개원의 대상 전문 교육 과정인 ‘EGDM(Essential Guideline to Diabetes Management)’ 프로그램은 지난 2000년 시작된 이래 254회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14,47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사노피 당뇨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윤경 이사는 “지난 10년간 사노피 당뇨사업부는 국내 환자와 의료진의 360도 당뇨파트너로서, 다양한 당뇨병 환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의약품 소개하고 더 나은 관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혁신적인 치료 환경 조성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노피 당뇨사업부는 10년의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비전인 ‘The Future Starts Now’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노피 당뇨사업부는 10주년을 기념하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 진행, 사노피 당뇨사업부의 역사와 성과를 담은 10주년 기념 책자 발간, 뉴스 레터를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 #

### 사노피 당뇨사업부에 대하여

사노피는 혁신적이고 개인맞춤형 종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당뇨병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 얻은 귀중한 견해를 기초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진단, 치료, 서비스, 장비를 제공한다. 사노피는 제 1형 당뇨병 및 제 2형 당뇨병 환자용 주사제과 경구용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다.

###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세노비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질환치료제 (젠자임 코리아), 동물약품 (메리알 코리아)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